

광주에서
문화를
／
한다는 것



대전에서 태어났고,
여수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2006년 전남대 입학 후
15년째 광주에서 화가로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 열



상실된 공동체의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는

화가 윤석문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처음 접한 광주에 대한 기억은 짙은 향 내음,
엄숙하고 무거운 애도의 기억이었다. 오월 광주의 역사를 묵도하면서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힘든 충격이 왔다.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묘한 거리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화가 윤석문

대전에서 태어났다. 여수를 거쳐 광주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에서 화가로 살아가는 윤석문 화가(35).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 것은 몸 여기저기가 훼손된 곰인형이다. 삭막한 흑백화면 속 곰 인형의 이름은 도리. 내향적 성격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온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했다. 2018년에 개인전 <Cm x Mental Hertz' - 지구발전오라>를, 2019년에는 그룹전 <설한 풍정>과 <ARTIKA> <모수> 전을, 2020년에는 그룹전 <오월이 온다>전과 올해 그룹전 <빈집-상실 이후에 쓰는 사랑>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는 작가 윤석문에게 어떤 도시인가?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처음 접한 광주에 대한 기억은 짙은 향 내음, 엄숙하고 무거운 애도의 기억이었다. 5·18 묘역과 구 전남도청을 돌아보며 국가폭력의 참혹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오월 광주의 역사를 묵도하면서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힘든 충격이 왔다.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묘한 거리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 머물다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광주로 다시 왔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광주에 있던 친구들, 연인이 되었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연대와 공동체 같은 개념들이 많이 상실되었지만 그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주에는 많다. 싸우기도 하지만 대화가 끊기지 않는 그런 세상

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그런 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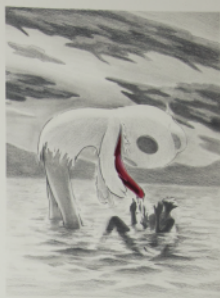
버려진 곰인형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중 길가에 버려진 곰 인형을 봤다. 누군가에게 선물로도 많이 주는 곰 인형은 관계의 상징 같은 느낌이 있는데 버려진 걸 보니 관계의 단절, 상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인형을 도리(곰돌이→돌이→도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현실 속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캐릭터들도 만들었다. 사람들도 사회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일종의 캐릭터, 요즘 말로 부캐를 갖는 것 같다. 이 인형들이 그런 사람들의 껍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찾아가는 공간을 이글루라고 했고 타이틀도 “이글루를 찾아서” 이다. 이글루는 에스키모에게 정주의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 사냥을 가거나 장기적인 이동을 할 때 잠시 머무는 임시적인 공간이다. 현대인들이 끝없이 이사를 다니면서 머무는 공간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잠시 버티고 온기를 얻는 곳이지만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명명했다.

캐릭터는 귀여운데, 촌고 삭막한 여행을 하고 있다. 성장과정은 어떠했나?

사실 누구나 특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다. 지금까지 한 30번은 다닌 것 같다.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만 세 번을 옮기고 지역도 많이 옮기고. 어머니가 혼자 나랑 동생을 키우면서 생계를 위해 많이 이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중
 길가에 버려진 곰 인형을 봤어요.
 누군가에게 선물로도 많이 주는 곰 인형은
 관계의 상징 같은 느낌이 있는데 버려진 걸 보니
 관계의 단절, 상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를 하시고 고생을 하셨다. 그러다 보니 늘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성격에 대인 관계가 많이 어려웠다.

그림을 말렸어야 했는데, 못 그래서 미안하다시던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시절을 소환하면 작품활동에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은 어머니
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미술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 어머니가 내가 작업하는 걸 힘들어 할 때 그림
그리는 걸 말렸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미안하다고 하
신 적이 있었다. 그때가 가장 슬펐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
자. 한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작업을 이어온 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창작자로 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계와 창작, 그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을텐데.

내가 생각하는 작품 속 세계와 현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다 보면 창작할 시간이 없다. 내가 느끼는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획일화되고 속물화되게 만드
는 구조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작업에
서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 나는 개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시스템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나.

특히 요즘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스스로를 가둬버린 사람들이 많다. 고립된
껍질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나도 평생 고민하고 극복하지 못한 문제다. 어릴 때는 타인의



“광주에 있던 친구들, 인연이 되었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연대와 공동체 같은 개념들이 많이 상실되었지만
그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주에는 많아요.
싸우기도 하지만 대화가 끊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그런 도시죠.”

손길들이 너무 간절해서 정말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그러다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무례하고 야만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한다. 불이익을 좀 당하고 괴로울 때도 상대의 입장에서 천천히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내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다. 결국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이니까. 냉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기 파괴적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메타버스 전시 같은 온라인 소통방식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식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전시를 했다. 어떻게 달랐는지.

처음에는 나도 메타버스에 대해 잘 몰랐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해 본 것이다. 실제 전시공간은 광주시 서구쪽에 있고 메타버스 안에도 전시관이 있는 형태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뒤섞여 경계가 없어진 곳이다. 실제로 그 안에서 결제를 하면 현실로 물건이 배달되어 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그 안에서 즐기고 놀고 있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되지 않을까 싶어 흥미롭게 지켜보는 중이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어떤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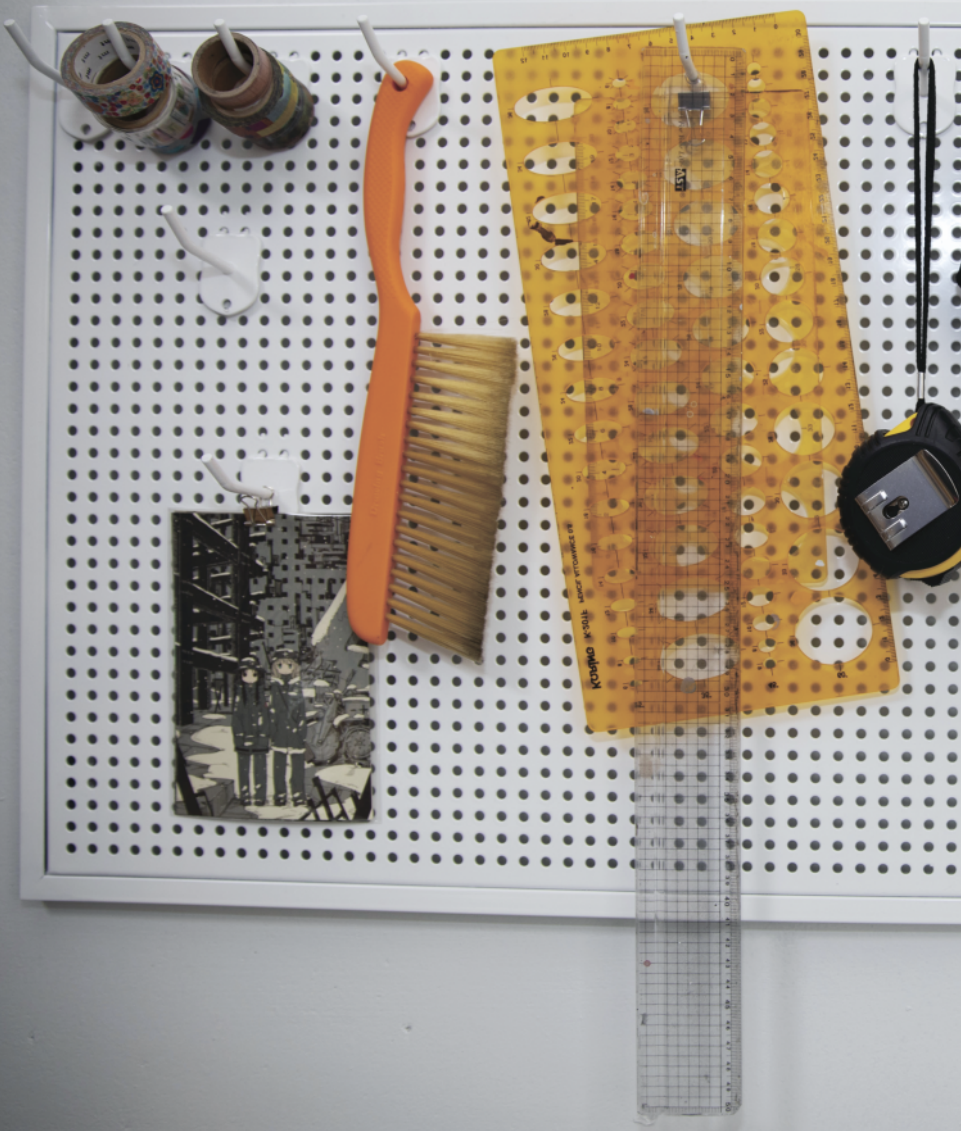
결국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가로 유지되지 않나. 타인이 흘린 땀, 고통, 상처에 대가를 지불하고 먹고 즐긴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나 혼자만의 세상, 내 개성이 중요한 세상 이런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이어져 있는 삶, 그것에 공감하는 개인,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캐릭터



들도 인형으로만 머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일단 그림 책을 내기 위한 개인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작업과 별개로 내가 광주에서 받은 따스함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작업을 하다 지치면 찾는 것은? 찾아가는 공간은?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듣는다. 심야에 하는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하는데 고요한 밤시간에 혼자 작업할 때 좋은 친구다. 좋아하는 장소는 전남대학교다. 그곳에 가면 좋다. 학교의 나무들, 숲이 정말 예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곳보다 거기를 가게 된다. 오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열 하나



울타리를 깨고 묶인 시대를 건너가야

화가 임현채

광주는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수중의 돈으로 서울까지 가긴 어렵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광주의 창작스튜디오에 지원을 하게 됐다.
전주가 충청도랑 가까워선지 느린 것에 비해 광주는 참 빠르더라.
뭔가 우리 색깔은 이거야,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았다.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고

전주에서 활동했다.

2012년 조선대 대학원 진학 후

9년째 광주에서 화가로 살아가고 있다.



화가 임현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 전북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2004년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낮선이와 빵을 먹어본 적 있는가>를 시작으로 <임현채 ; 그림에도 불구하고> 등 개인전을 가졌다. 2005년에는 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드로잉 파티 'come together yeah'>와 스킵 바젤 파빌리온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광주에 정착한 것은 2012년 조선대 미술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부터였다. 그해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2016년에는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임현채 작가(42)의 그림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공간과 사물의 흔적들이 독특한 감성으로 담겨 있다. 은은한 파스텔 톤 색조로 장난감, 낚시대, 풍선공, 솜사탕 등 손때 가득한 물건들을 담아낸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멈출 수 없는 현재를 그려낸 작품이다.



색감이 아름답고 장난감이 많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육아의 흔적을 읽었다. 작업에 내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더라. 예전에 선배들 그림을 보면서 아기를 키우면 달라지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한숨). 쓸 수 있는 재료, 작품 사이즈까지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돌보면서 색채를 많이 쓸 수 없으니 단색 드로잉을 하게 되고 사이즈도 A4나 A3정도로 작아지고, 널브러진 장난감의 홍수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생각하고 관찰하게 되고, 이걸 그림 그리는 사람의 버릇인 것 같다. 일상 속에서 계속 관찰하는 것.

기존 작품들도 동화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 훨씬 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이 있던데.

유년 시절에 전북의 시골에 살았다. 여덟 살 때까지 밖에 안 살았는데도 그곳이 나를 형성한 근본이라는 생각을 한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가 있다. 그때의 기억, 내가 살았던 따뜻했던 공간을 하우스 형태로 표현을 했고 그곳은 이끼가 끼고 잔잔하고 정제된 공간이었다. 나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다.

결혼을 하니 현실에 눈을 뜨게 되더라. 물론 그전에도 현실이 있었지만 돈이나 생계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이상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니 작품을 바로 팔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다. 내 마음 속 정제되고 조용한 공간이 시끄럽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공간이 넓고 사물이 굉장히 작았는데 사물이 클로즈업 되고 화면 안에서 크게 등장을 한다. 아이를 키우면 알지 않나. 널브러진 장난감, 치울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홍수처럼 밀려오는 기분이 들고.

쌓여있는 장난감, 초록색 테이프로 친친 감겨진 모습이 위태롭다. 실제로 상황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한다던가?

사물들이 막 쌓여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진짜 쌓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불안한 상태의 나를 표현한 거다. 실제로 그게 내 모습이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붙여진 모습이 험크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 막 감았다는 해석도 하시더라. 육아를 내가 많이 하긴 하지만 남편도 나의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주비엔날레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국제적 인프라 덕분에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 내부적으로는 투쟁의 시대에 묶여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광주가 해낸 시대적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지만
그래도 광주니까, 광주는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말은 일이 다를 뿐 힘들고 불안한 마음은 같은 거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감정이기도 하고, (그의 남편은 음식과 산수풍경을 채색화로 결합시킨 작품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하루K 작가다.)

작업실에 남편 작품도 많이 있다. 서로의 작품 이야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나?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남편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남편이 큰 음식을 그리고 나도 사물을 크게 그리고, 약간 초현실주의 같은 느낌이 비슷한가 보다. 남편은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작품을 풀고 나는 내가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푸니까 이야기의 줄기가 다르다. 물론 작업을 진행할 때 서로 묻는다. 그런데 남편이 많이 얘기하지는 말자고 하더라. 포인트 몇 가지만 건조하게 얘기해야지 길게 말하면 싸우게 된다. (웃음)

광주는 어떤 도시였나. 화가 임현채에게.

광주는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살던 곳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수중의 돈으로 서울까지 가긴 어렵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광주의 창작스튜디오에 지원을 하게 됐다. 대학원도 광주로 오고 스튜디오에 입주할 해서 아예 옮겨서 살게 됐다. 그때 남편도 만났다. 전주가 충청도랑 가까워서 많이 느린 것에 비해 광주는 참 빠르더라. (웃음) 뭔가 우리 색깔은 이거야,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았다. 아는 사람도 없어서 미술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기존의 학연이 아니어도 활동할 길이 보였다. 타지역 작가가 함께 할 수 있는 레지던시도 있고 대안공간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간다> 162.2x130.3cm, 종이위에 아크릴 과슈, 2021



<무게> 116.8x91.0cm, 종이위에 아크릴과슈, 2019

그런 곳들이 작품 이야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았다. 남편도 서울에서 생활비 걱정하다가 작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10년을 보내다 이곳에 다시 와서 자리를 잡았다.

지원사업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창작레지던시라던가 이런 사업이 거의 없어서 돈 모아서 대관료를 내고 그랬다. 이런 사업들이 많아져서 좋긴 한데 또 나이가 들고 보니 지나치게 청년 위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웃음) 지금 내 나이가 경력이 한참 오래된 작가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애매한 나이다 보니 만 39세까지 라는 청년지원 제한에 다 걸리게 된다.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가겠지만 지원사업도 못 받는 경력 작가들은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다른 일을 해보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 제목도 이토록 찬란한 무게 아닌가? 힘든 순간도 있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작업이 나오기도 했고, 이 순간이 돌이켜 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단색조로 하다가 사물 자체의 색을 거의 그대로 살린 것도 쌓여 있으면 무겁지만 색이 밝으면 무겁지 않게 느껴져서였다. 그 무게들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멈춰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묶고 부여잡고 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막 가보려는 나의 의지이기도 하다. 전에는 기억과 기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다면, 지금은 많은 것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균형을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행진> 162.2x130.3cm, 종이위에 오일파스텔, 아크릴 과슈, 2021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53.0x40.9cm, 캔버스 위에 먹, 2021

“힘든 순간도 있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작업이 나오기도 했고, 이 순간이 돌이켜 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일까?

2019년 작품 중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작품이 있다. 항상 생일을 축하받는 것에 대한 어색함이 있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보니 내 생일이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사람이 선택을 해서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나. 태어나고 사람들이 존재를 알아주고 축하를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어쨌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작업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이야기로 소통하지 않을까. 아이가 크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 나인 것 같다.

광주가 지닌 문화적 특이성이랄까, 변화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

폐쇄성이다. 광주비엔날레나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국제적 인프라 덕분에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 내부적으로는 투쟁의 시대에 묶여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물론 광주가 해낸 시대적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다. 그래도 광주니까,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깨고 외연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성지로서의 자부심은 그렇게 더 넓혀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야기 열 둘

무형의 가치로 성공하고 싶다

강연콘텐츠 플랫폼 이야기브릿지 김경한 대표

강연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기 전 나는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기성세대를 비판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 속 n분의 1이구나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이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했다.

경남 하동 출신이고
전남대 입학 후 10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다.
강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강연콘텐츠 플랫폼 이야기브릿지 김경한 대표

사람들은 대부분 ‘강연’을 자신의 영역에 있는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단히 성공을 해서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 인생에 대단한 스토리가 있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외의 눈으로 그들의 강연을 본다. 그런데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던 마이크가 조금씩 넓어 오고 있다. 멀리 있는 별보다 가까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마음을 울리고 공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강연이라는 형식에 대한 거리감은 이야기의 감동으로 금세 사라지는 법, 사람들에게 강연 권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 있다. 강연콘텐츠 플랫폼 이야기브릿지 김경한 대표(29)다. 경남 하동 출신인 그는 벌써 10년째 각화동 주공아파트 지하상가에 동지를 틀고 강연을 하나의 콘텐츠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각화동 주공 주거재생사업 청년단장까지 맡고 있는 그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은 ‘강연을 강연하는 사람’이다.



보통 강연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연 대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신기한데.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하고 나면 계속 욕심이 생긴다. 강연 참가자들 중 콘텐츠가 너무 좋은 경우 학교 같은 기관 강연자로 연결도 시켜 드리고 토크콘서트를 열어 초청을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머릿속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야기화 할 수 있도록 코칭해준다.





“이야기브릿지에는 청소년, 노년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게 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주거 재생사업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주민분들과 김장도 하고 치매진단 프로그램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있죠.
복지와 기획을 접목한 영역이라고나 할까요?”

단순히 강연대회를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고 코칭을 한다는 애긴데.

처음에 강연대회를 할 때 대부분 자기가 잘한 이야기, 뭔가 이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다. 힘든 일, 과거의 극복 안 되는 사건, 이제는 떨치고 가고 싶은 괴로움을 이야기한다. 이 사연을 자꾸 피드백하고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많이 봤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목을 뺏던 19살 고3 친구, 쌍둥이 언니와의 비교로 스트레스 받은 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던 친구, 취업이 안 돼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면 눈물이 나서 하늘을 쳐다봤던 일.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회복이 되어서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본다. 강연의 가장 큰 효과다.

이야기브릿지의 전신인 영보이스토리를 만든 것이 대학생 때였다. 전공이 경영학인데 강연 쪽으로 진로를 잡은 것도 독특한 것 같다.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결과를 강연으로 푸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였다. 나도 내 이야기 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가 2016년도였는데 때마침 국민 강연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냥 나가봤는데 탑10 안에 들어서 서울에서 청중 평가단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그때 너무 재밌고 좋았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영보이스토리라는 청년 단체를 만들게 됐다.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이 잘 되었는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모아서 1년 동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다. 강연대회 하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을 다 찾아다니며 기획서를 돌렸다. 그러던 중 다니고 있던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문화 증진에 대한 행사 의뢰가 왔다.

그 행사가 4회까지 이어진 전남대학교 강연대회 전대미문인가?

맞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전남대학교 학생자치문화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였다. 유력 정치인,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도 참석자가 20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대미문 행사를 저녁 7시에 했는데 200명이 왔다. 행사 상품을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것으로 전부 바꾸고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해서 강연을 심사하게 했다. 청중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영보이스토리에서 이야기브릿지로 전환을 했다. 전 세대를 아우르겠다는 취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걸까?

갑자기 바꾸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영보이스토리 초기부터 청년으로 시작해서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전 세대의 강연 이야기를 담은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가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원래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는 편이다. 지금도 12월 31일까지 시간대별 일정이 다 채워져 있다. 청년들은 문화, 중장년은 책, 노년은 복지, 청소년은 교육으로 연결을 시켜 그들 이야기를 모아서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영보이스토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청소년 교육은 학교에 가서 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브릿지에서는 가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복지관을 다니면서 노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다.



“서울에서 기반을 잡아라, 서울을 목표로 하지 말고
 아시아로 넓혀가라, 지방에서는 못 먹고 산다,
 이런 얘길 늘 들었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오기가 생기더라구요.
 지방에서 무형의 가치로써
 내가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자는 생각이...”

어린시절은 어땠나. 강연대회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도 궁금하다.

학교 다닐 때 늘 들었던 말은 ‘경한아 말좀 그만해라.’였다. (웃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서 있다가 의자를 들고 와서 앉아서 듣고 그랬다. 그때는 선생님이나 직업군인처럼 품이 나보이는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실 정말 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고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애기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의도에서 말한 거라도 목표를 밖으로 내뺌으니 뭔가를 할 동력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강연대회에 나가서 했다. 또 내 고향이 경남 하동인데 전라도와 붙어있다보니 선거철에 늘 진풍경이 펼쳐졌다. 같은 동네에서 완전히 다른 당이 당선이 되고 유세도 나뉘서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중앙선관위 주최 강연에서 하고(웃음) 겪은 일은 무궁무진하니 이렇게 주최 측의 주제에 맞게 잘 풀어내는 거다.

많은 강연자들을 만나면서 본인에게 일어난 변화도 있을까?

나는 스스로를 ‘강연을 강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사람들은 동기부여보다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위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온다. 평범한 사람들이 강연을 해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다. 강연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기 전 나는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기성세대를 비판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 속 n분의 1이구나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이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힘들었던 인생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겸손해졌다.



지역을 무대로 계속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텐데 꾸준히 광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행사를 해보면 지방으로 올수록 무형의 가치에 돈 내는 걸 꺼려 한다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문화나 예술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떠나게 되는 것 같다. 서울에서 기반을 잡아라, 서울을 목표로 하지 말고 아시아로 넓혀가라, 지방에서는 못 먹고 산다, 이런 얘길 늘 듣는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오기가 생기더라. 지방에서 무형의 가치로써 내가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자는 생각. 카페나 음식점처럼 직접 물건을 파는 걸로 지역에서 성공하는 것과 무형의 가치로 성공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같다. 무형의 가치, 그것도 강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12월까지 일정이 꽉 차 있다. 열정과 의욕이 넘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처음에는 결핍에서 나왔던 것 같다. 독립하고 싶다, 돈벌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일을 점점 하다보니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너무 좋다. 난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치열하게 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정말 재밌다. 사실 계획적이라고 했지만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게 더해지면 주저하지 않고 바꾸고 더하는 편이다. 지금 하는 일과 관계없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오더라. 아이디어를 연상하고 합치고 다른 기관들과 공유해서 새로운 걸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성향에 맞다. 처음은 결핍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재미가 원동력이다.

지금 각화동 임대아파트 주거재생 사업은 언뜻 보면 하고 있던 일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야기브릿지라는 콘텐츠 플랫폼에는 청소년, 노년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게 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주거 재생사업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학교에 마을 교육공동체로 수업을 들어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마을 복지 공동체 사업비로 주민분들과 김장도 하고 치매진단 프로그램도 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찍고 있다. 복지관에 따로 갈 것도 없이 이곳에서 하는 일이 바로 복지였다. 원래 페스티벌 같은 기획을 하려 왔는데 주민분들과 꽃, 나무도 심고 벽화도 그리고 어르신들과 떡도 먹고 이렇게 새로운 영역이 생긴다. 복지와 기획을 접목한 영역이라고나할까.

많은 일을 해왔지만 놀랍게도 아직 20대다. 미래의 김경한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뇌리에 깊이 새겨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다. 멀리서 치는 파도도 내 발에 왔을 때는 잔잔한 물결이 돼 있다는 말이다. 두려워말고 하나하나 하다보면 큰 파도도 결국 잔잔한 물결이 되어 있다. 나는 내가 한 것으로, 김경한이라는 사람으로 먹고 살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신나게 해가고 있지 않을까.

화가 윤석문 —

결국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가로
유지되지 않나. 타인이 흘린 땀, 고통,
상처에 대가를 지불하고 먹고 즐긴다고 생각한다.
작업과 별개로 내가 광주에서 받은 파스함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화가 임현채 —

물론 광주가 해낸 시대적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다.
그래도 광주니까,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깨고 외연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성지로서의 자부심은
그렇게 더 넓혀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강연콘텐츠 플랫폼 이야기브릿지 김경한 대표 —

그냥 서울에 와서 살아라, 지역에 가능성 없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다.
사실 행사를 해보면 지방으로 올수록 무형의 가치에
돈 내는 걸 꺼려한다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한다.
카페나 음식점처럼 직접 물건을 파는 걸로
지역에서 성공하는 것과 무형의 가치로 성공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같다.
무형의 가치, 그것도 강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야기 열 셋



예술 관광 도시 광주는 지금 진행 중

쥬스컴퍼니 이나영 차장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는 몰랐다.

그런데 여기서 낳은 아이가 지금 아홉 살이 되었다.

원래 예술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고 전국적으로 봐도

인구 대비 예술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동네다.

광주에 산다면 여기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서울 출신이고

2012년 문화기획회사 주스컴퍼니 입사를 계기로

광주에 정착해 9년째다.

문화기획가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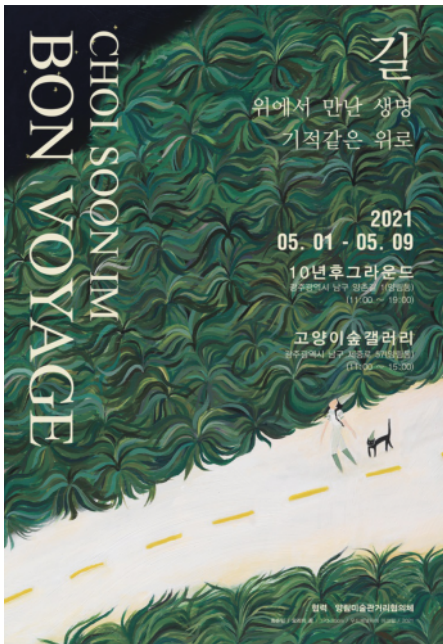


쥬스컴퍼니 이나영 차장

광주에서 가장 핫한 동네라 할 수 있는 양림동. 1930양림쌀롱, 양림골목 비엔날레 같은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근대건축물들이 즐비하다. 골목길에는 숨은 보석처럼 갤러리와 작업실들이 있다. 이런 양림동의 변화에 문화기획회사 쥬스컴퍼니가 있었다. 쥬스컴퍼니 사무실이 있는 카페 <10년 후 그라운드> 역시 오래된 유치원 건물을 개조한 곳이다. 쥬스컴퍼니의 이나영 차장(38)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냐는 질문을 던지자 '문제의식'이라 답한다. 이렇게 좋은 양림동이 알려져있지 않다는 문제의식, 광주천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문제의식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문화적인 도시재생이 아니라 난개발로 망가진 동네들을 생각하면 더 많은 이나영들과 그들의 문제의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양림동은 일터이자 집이다. 구도심 양림동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 어떨한가? 서울에 살다 왔는데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여기에서 살면 삶이 여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에 젊은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주로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왜 시골에 이사를 왔냐고 말씀을 하시더라.(웃음) 2012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는 몰랐다. 그런데 여기서 낳은 아이가 지금 아홉 살이 되었다. 우리 직원들도 이곳으로 이사를 많이 왔다. 원래 예술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고 전국적으로 봐도 인구 대비 예술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동네다. 굳이 서울에서 이주를 했는데 외곽의 신도시 지역에 살 이유가 없지 않나. 광주에 산다면 여기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지역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어찌보면 흙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지역의 자원들을 찾아
잘 엮어서 콘텐츠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주스컴퍼니가 해온 일들이 다양하다. 문화기획에서 마케팅, 컨설팅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말할 때도 하는 일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뭐하는 회사라고?’ 되물으신다. (웃음) 문화관광분야의 정책 실행이나 사업 평가 등을 하는 컨설팅 파트,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기획 파트, 마케팅 파트로 나뉜 15년 된 회사다.

지금 서울 남산 한옥마을과 광주 양림동을 기반으로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문화기획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축제 베이스로 일을 많이 하다가 전통시장사업, 지금의 도시재생까지 이어오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처럼 민간에서 일을 하는 기획자들도 있지만 공공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다.

지금도 생소한 분야인 일을 15년 전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2000년대 초중반은 문화기획이라는 단어가 막 부상할 때였다. 기존의 공연기획, 전시기획이 장르 중심인데 비해 문화기획은 두루두루 아우르는 개념이다.

초반에는 축제 기획으로 시작하는 일이 많았는데 축제가 이벤트의 영역을 넘어서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판을 만들어내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넓어졌다. 당시 한겨레 문화기획아카데미라는 문화센터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회사를 처음 만들 때 그쪽 출신들이 많았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고 공공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분들과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문화적 도시재생은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하드웨어를 많이 바꾸는 재개발이 있다면 도시재생은 지역을 바꿀 때 남길 것을 남기는 것이다. 지역에 대해 인문학적 접근을 해서 문화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묻혀있던 자원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 지역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어찌보면 흙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지역의 자원들을 찾아 잘 엮어서 콘텐츠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양림동에서 찾아낸 히스토리는 무엇일까?

게스트하우스, 미술관, 레지던시가 있는 호랑가시나무 언덕 게스트하우스 정현기 대표님과 인연이 있어서 양림동에 올 기회가 많았다. 양림동은 선교사가 처음 정착한 곳이어서 커피같은 신문물 소개가 먼저 되었다더라. 김현승 시인의 호가 다형인데 차를 즐기는 형이란 뜻이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들었다.

신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온다. 근대 건축물, 근대의 예술가들 같은 다양한 유산이 있다.

지금 이 장소도 은성유치원이라는 40년 된 유치원 건물이다. 작년 '양림기억창고' 프로젝트로 '안녕, 은성유치원전'이라는 아카이브 전시를 열기도 했다. 올해부터 스토어, 카페, 사무실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 운영하고 있다.



“광주가 광역시 중 관광객 수가 최하위권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관광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고민을 했죠.
 광주에는 비엔날레를 비롯해 현대미술, 문화, 예술가
 이런 이미지도 있고 자원도 있으니
 이런 문화자원들을 잘 엮어서 브랜딩화 하는 일이...”

쥬스컴퍼니에서 진행한 문화축제 ‘1930양림쌀롱’은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 마을이 무대라는 슬로건으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해온 축제다. 일 년 중 6개월을 날씨만 좋으면 매달 해왔다.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과 당대의 인물들이 가진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마을 축제로 관광객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광주의 1930년대를 주제로 한 음악, 연극, 문학,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100년 전 예술인, 선교사의 이야기와 근대문화자원들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마을에 있는 청년 뮤지션들이 마을의 카페나 식당과 연계해서 작은 공연들을 하기도 하고 마을 곳곳을 산책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다.

긴 기간 동안 매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참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지역사회에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예술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양림동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활동을 이해시킬 수도 있었다. 또 이후의 활동에서 우리 회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강점이 된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회사에 가장 많은 것을 가져다 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다.

1930양림쌀롱이나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대중의 호응이 좋았는데.

미술이든 음악이든 대중 앞에 선보여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창작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일을 문화기획자가 하는 것이다. 양림동은 화가들이 굉장히 많다. 크고 작은 갤러리만 해도 15개 내외가 될 것이다. 이분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양림동의 상점들을 엮어서 전시공간으로 사용한 행사가 양림골목비엔날레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기획한 행사기도 하다. 아무래도 사람들



이 많이 모이는 축제형식보다 전시관람은 위험 부담이 좀 덜하니까.
이 행사를 위해 양림미술관거리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마을
의 작가님들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과 만들어가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원칙이나 노하
우가 있다면?

회사의 신입들이 좀 신기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나 쥬스컴퍼니
대표님이나 완곡한 표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웃음) 우리는 네
트워킹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일을 할 때 갈등의 여지를 만
들면 안되기 때문에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하면서도 일은 되게 만
들어야 하니까.

젊은 인력의 유입도 많이 있는 편인가?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예술가도 아닌데 하고 싶다는 뜻만으로 많은 것
을 감수하며 일을 하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아니니까. 하지만 창의적
인 일하면서 지역과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참
잘 맞을 것 같다.

지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
만 관련 일을 하다가 소개나 연결로 오기도 하고 전남대학교 문화전
문대학원 출신들이 들어오기도 한다.

1930양림쌀롱, 양림골목비엔날레에 이은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양림미술관거리협의회체 이름으로 ‘광주예술천ON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광주천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데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이후 무대와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청년기획자들과 예술인들이 광주천을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문화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작가 7명과 청년기획자 9명이 야외 설치 작품을 작업하고 그것과 엮어서 11월에 2주동안 전시행사를 했다.

문화기획자의 입장에서 본 광주는 어떤 도시일까. 양림동을 넘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광주광역시 관광과와 예술관광도시 계획 수립을 몇 년 전에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사업들을 계속 하는 중이다. 광주가 광역시 중 관광객수가 최하위권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케이블카를 만들거나 큰돈을 들여 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관광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고민을 했다. 광주에는 비엔날레를 비롯해 현대미술, 문화, 예술가 이런 이미지도 있고 자원도 있더라. 이런 문화자원들을 잘 엮어서 브랜딩화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았다. 최종적으로 예술관광도시라는 컨셉으로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예술여행학교를 열어서 커리큘럼 운영을 하며 관광분야 인력양성도 하고 있다. 양림동에서 개척한 경험을 갖고 도시를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참 재미있다.



프랑스 출신이고

2018년 워킹홀리데이로 광주를 방문,

3년째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공예가로 활동 중이다.

이야기 열 넷

세월의 흔적들이 지켜지는 도시이길

가죽공예가 플랑드르 줄리아

프랑스에서 친했던 한국 친구 때문에 한국문화에 원래 관심이 좀 있었다.

그래서 6개월 인턴십 과정을 한국에서 하려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머물다가 광주에 비엔날레가 있어서 오게 되었다.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했기에 가죽공예 작업에 관심이 갔다.

가죽공예가 플랑드르 줄리아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줄리아 플랑드르(27)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대학 인턴십 때문이었다.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학교에서 6개월 정도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기로 맘먹었다. 광주에는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박선자 씨가 운영하는 마더구스 가죽공방에서 인턴을 하게 됐다. 그때 박선자 씨가 아들이자 한옥목수인 강동수 씨에게 광주 안내를 부탁했다. 1년 뒤인 2018년 줄리아는 다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광주로 왔다. 다시 마더구스 가죽공방에서 일을 했고, 2019년 10월에는 한옥목수이자 한옥리모델링업체 배무이 대표인 강동수 씨(26)와 결혼을 했다. 줄리아의 직장인 가죽공방은 광주 원도심인 동명동에 자리한 한옥이다. 기와 지붕에 서까래, 붉은 굴뚝이 있고 미닫이문과 닳돌이 있는 집이다. 남편은 한옥을 고치고, 아내는 한옥에서 가죽 제품을 디자인한다. 신혼집 또한 남편이 고친 오래된 계림동의 한옥이다.



고향이 프랑스에서도 알프스 근교라고 들었다. 알프스 출신이 광주의 구도심, 그것도 한옥에서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 있는 몽파유어(Montaille)가 고향이다. 알프스가 가까운 곳인데, 소를 키우고 치즈를 만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래서인지 마당도 없는 아파트를 보면 너무 이상하다. 마당이 있는 이런 집이 좋다. 어릴 때부터 대가족 속에서 자라서 이런 문화, 이런 주택이 익숙하다. 또 한옥은 방도 따뜻해서 좋고 예쁘다.





남편인 강동수 씨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프랑스에서 친했던 한국 친구 때문에 한국문화에 원래 관심이 좀 있었다. 그래서 6개월 인턴십 과정을 한국에서 하려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머물다가 광주에 비엔날레가 있어서 오게 되었다. 사실은 동수 씨보다 어머니와 먼저 친해졌다.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했기에 어머니의 가죽공예 작업에 관심이 갔다. 어머니랑 빈티지한 옛날 것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하고 말도 정말 잘 통했다.

줄리아 씨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머니가 하는 마더구스 공방 일을 같이 한다. (에어팟 케이스 등 제품을 보여주며) 디자인을 하고 패턴 같은 걸 만든다. 어머니가 오프라인으로 스케치를 하면 나는 컴퓨터로 그리고 작업물을 인스타에



올려주는 것 등을 한다. 남편이 광주 전남 쪽 오래된 건축물을 계속 발굴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양이나 디자인들이 있다. 오래된 집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을 모아 아카이빙해서 책으로 남기는 작업이라든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작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 또 바닥이나 벽에 있는 문양, 패턴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귀고리 같은 장식품들을 만드는데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것들이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나중에 파리에서 열리는 핸드메이드 페어 같은 곳에 이런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진출도 해보고 싶다.

인스타에도 요리 사진이 자주 올라오던데 요리 솜씨가 정말 놀랍다.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다. 어릴 때부터 손님이 오실 때 할머니가 케익 같은 것을 만드는 걸 많이 봤고 대가족에서 살면서 자연스



럽게 접했다. 인스턴트를 싫어해서 프랑스 가정식을 많이 만들고, 사실 어머니와 공방 제품 만들기과 요리를 접목해서 클래스 같은 걸 운영해볼까 의논해본 적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그렇고 구상만 해보고 있다.

프랑스 사람의 눈으로 본 광주는 어떠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너무 빨리 많은 게 사라지는 것 같다. 광주에 처음 왔을 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고층아파트가 없어서 포근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다 재개발이 되어서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래된 동네에 살다 보니 차를 타고 다니기는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정말 예쁜 곳들이 많다. 그런데 다음에 가보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있다. 남편과 함께 사라져가는 한옥들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사진에 담기도 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다. 뭐랄까. 광주는 역사 문화적으로 잠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쩔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도시인 것 같다. 광주 사람들은 자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인지하고 지켜 나갔으면 한다.

강동수 씨에게도 질문을 드리겠다. 한옥 목수라는 직업도, 상투를 튼 모습도 굉장히 독특하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자사고(자립형사립고)에 다녔는데 6시에 일어나서 밤12시까지 공부로 혹사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원래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입시공부는 아니었다.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방황을 하다가 유럽에 3개월 정도 있게 되었는데 오래된 집 고치는 일을 했다. 그때 문화적 충격을 많이

“남편이 광주 전남 쪽 오래된 건축물을
계속 발굴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양이나 디자인들이 있다.
귀고리 같은 장식품들을 만드는데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것들이다.
나중에 파리 핸드메이드 페어 같은 곳에
진출도 해보고 싶다.”



받았다. 돌아와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한옥과정에 지원해서 배우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가족공방으로 쓰는 이 집도 제가 고친 것이다. 한옥을 배울 때 사람들과 같이 리모델링을 했고, 그 뒤로도 손을 봤다. 열아홉 살이었는데 어머니에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어린 아들에게 맡기냐고 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사교육비 대신이라 생각하셨다고 한다.

가족공방도 한옥과 잘 어울린다.

공방을 한옥으로 옮긴 뒤로 사람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한다. 백퍼센트 수제공방이고 빈티지 제품이고 하다 보니 한옥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해하더라. 또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옛날 우리 집, 할머니 집을 떠올리기도 한다. 이 집을 보고 한옥을 알아봐달라,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다.

광주 도심에 아파트 건축이 부쩍 늘었다. 한옥목수로 강동수 씨가 느끼는 광주의 변화는 더 심할 것 같다.

한국의 시스템은 뭐든지 분리를 해놓는다. 전주나 경주 북촌 같은 한옥마을은 특화를 시켜서 따로 분리를 해놓고 그곳에 한옥을 보러 가게끔 해놓지 않나.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다. 어느 도시, 어느 동네나 한옥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양식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건데 전혀 보존이 안되고 있다. 문화재로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보존이 되어야 한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



“오래된 동네에 살다 보니 자전거를 타는데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정말 예쁜 곳들이 많다.
그런데 다음에 가보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있다.
안타까울 때가 많다. 뭐랄까.
광주는 역사 문화적으로 잠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도시인 것 같다.”

아지는 것 같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의뢰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수요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뭐든 지원해서 하는 데 아직 지원이 많은 편은 아니고, 도시를 재생할 때 법률적으로 어디까지는 손을 댈 수 있고 어디까지는 손대면 안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유지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조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근현대기에 만들어진 좋은 건축 자산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광주의 매력이 더 풍성해질 것 같다.

리모델링과 더불어 아카이빙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궁극적으로는 오래된 건축물이 헐리지 않고 남아서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자본력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니 고민이다. 지금 미국인 교수님과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옥을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구상 중이다. 재개발로 헐려나가는 한옥을 인력과 돈을 들여 조심스럽게 해체해서 미국 쪽 마켓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다. 집을 하나 팔 때마다 그 집의 자료와 역사를 아카이빙하고 집과 함께 파는 것이다. 어쨌든 부동산이기 때문에 돈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집들이 부서져 나가는 것은 돈이 안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래된 집들은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법 같은 기준도 공부해서 건물의 금전적 가치를 데이터화해보고 싶다. 완전히 특수 부동산으로 따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되면 건물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 방법으로 세월과 역사가 묻은 한옥을 지키고 싶다.



경남 창원 출신이고

2016년 복합문화공간 먼데이 오프 플리즈를 오픈해

5년째 광주에서 활동 중이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자이자 디제이로 활동하고 있다.

이야기 열 다섯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먼데이 오프 플리즈 박재만 대표

음악감독 일을 할 때 광주에 올 일이 많았다.

광주가 예술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지 않나.

자주 오기 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지역색이 강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니더라.

음식도 너무 맛있고 뭔가 나랑 맞는 바이브가 있었다.

복합문화공간 먼데이오프폴리즈 박재만 대표

음식을 먹는 공간이 음식을 넘어서는 공간일 순 없을까. 디제잉 아티스트 박재만 대표(40)의 상상은 ‘공간 그 너머’의 이야기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음악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그냥 음식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음식이 하나의 로컬브랜드로 탄생하는 공간. 경남 창원 출신인 그가 광주 동명동에 문을 연 먼데이 오프 폴리즈는 그 상상의 결과물이다. 라이브 디제잉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예술가들의 협업이 만든 곳을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디에고라는 이름으로 디제잉을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가 표현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뭔가 더 자유로운 걸 하고 싶었다. 열아홉 살 때 처음으로 DJ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일을 하면서 만난 DJ분들이 작업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더해지더라. 디에고라는 이름은 20년 지기 친구가 지어줬다. 비디오 아트를 하는 친구인데 나를 보고 남미 사람을 닮았다고 추구하는 것도 닮았다고 하더라. 마라도나를 닮았다고 해서 디에고로 이름을 지었다.

다양 대숲을 비롯 다양한 공간에서 디제잉을 한다. 댄스음악 위주의 디제잉만이 아니던데.

춤을 추거나 댄스음악을 트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는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었다. 클래식도 보수적이고 지루하다는 선입견만큼이나 디제잉도 댄스음악, 힙합의 전유물 같은 생각이 있지 않나. 클럽



에서 뭔가 사람들을 춤을 추게 만드는 사람들, 귀에 손 올리고 손을 딱 이렇게 하는 (웃음) 그렇게 댄서블한 음악뿐 아니라 재즈음악, 펠로우하고 슬로우한 음악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음대를 나왔고 음반기획사에서 일한 이력을 보면 수궁이 가는 컨셉이다.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의 여정도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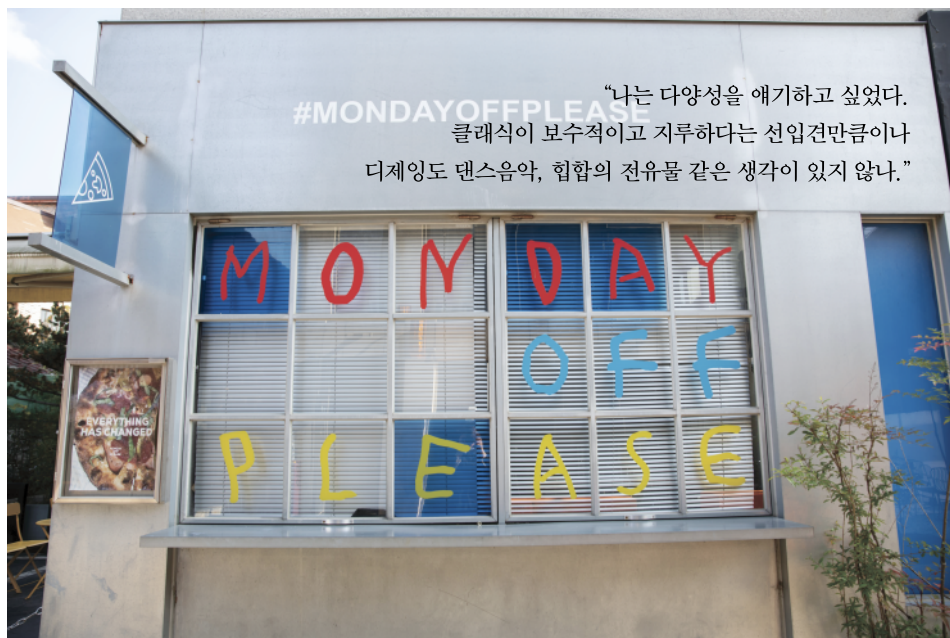
여섯 살 때부터 클래식 음악만 했다. 그런데 대학까지 가고 나니 보수적인 클래식이 나와 맞지 않다고 느꼈다. 패션 쪽으로 전파를 하려고 했다. 프랑스에 가서 패션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 자금을 모으려고 부모님이 하시던 요식업을 도왔다. 요리를 하다보니 피자라는 메뉴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서브 컬처 문화와 겹치는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탈리아에서 10년 이상 피자를 하신 선생님께서 배웠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경남 창원 출신인데 광주와 인연은 어떠했나?

음악감독 일을 할 때 광주에 올 일이 많았다. 광주가 예술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지 않나. 자주 오기 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지역색이 강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니더라. 음식도 너무 맛있고 뭔가 나랑 맞는 바이브가 있었다. 피자는 가장 자신 있는 메뉴였고 그때 피자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광주에 없었다. 음악도 내가 자신 있는 것, 음식도 내가 자신 있는 것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누구나 이 말부터 물어볼 것 같다. 왜 먼데이 오프 플리즈인지.

월요일에 쉬고 싶었다. 사람들은 늘 월요일을 괴로워하지 않나. 월요



병도 있고, 어찌 됐건 월요일에 쉬고 싶었다. 그런데 먼데이 오프라 고만 쓰면 뭔가 직설적이고 너무 친절하지 못하니까 뒤에 이제 플리즈를 붙여보자 이렇게 해서 된 거다. 굉장히 단순하다.

인스타에 있는 슬로건에 We make noise not pizza. 라는 말이 있다. 복합문화공간, 문화를 토핑한 피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먼데이 오프 플리즈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브랜드 언더커버의 디자이너 준 타카하시의 말 We make noise not cloth, (우리는 옷이 아닌 소음을 만든다.)를 그대로 인용한 거다.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이슈화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단순히 피자가 아닌 서브 컬처를 다룬다는 면에서 뭔가 이슈화를 하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을 넘어 음악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접할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오직 광주에서만 먹을수 있는 로컬푸드 또는 로컬프라이드를 생각해왔다. 음식과 음악, 문화가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먼데이 오프 플리즈가 다루고 있는 서브 컬처란 무엇인가?

공간 자체도 차가운 오피스 느낌이나 바 느낌의 분위기 등을 고려했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어야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장에 나가는 음악은 칠아웃 테라스, 소파 세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테라스에서 음악을 즐기는 콘텐츠와 따뜻한 소파에 앉아서 DJ가 틀어주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라이브셋으로 진행된 음악은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서 다시 즐길



“ACC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전시, 공연, 행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은 그 공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들만의 리그’ 같기도 하고, 알지 못 하니 무관심해진 것인가?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 무관심이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큰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 있게 했다. 요즘은 DJ 섭외가 어려워 잠시 멈춰 있는 상태다.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팝아티스트 존 버거맨, 일러스트레이터 김창새씨 등 우리와 색깔이 맞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굿즈도 만들고 피자박스 같은 가게 물품도 제작을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도 협업을 했는데.

고객 중에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들이 있어서 협업을 하게 됐다. 사실 광주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ACC라는 공간이었다. 나란 존재가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좋았다. 그런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 굉장히 아쉽다. ‘국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ACC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전시, 공연, 행사를 많이 하더라. 그런데 아직은 그 공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들만의 리그’ 같기도 하다. 알지 못하니 무관심해진 것인가?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모르는 것을 알아갈 수 없고, 그 벽을 무너트리기 쉽지 않다. 장기적 무관심이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큰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먼데이 오프 플리즈는?

한 10년 뒤면 아마 제주도로 가 있지 않을까.(웃음) 먼데이 오프 플리즈 하면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피자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곳 이렇게 떠올리면 좋겠다.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방향성이 조금씩은 바뀌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편안한 곳, 좋은 공간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이야기 열 여섯



시립발레단이 있는 유일한 도시답게

광주시립발레단 차석 발레리나 박경애

한국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발레단이 두 개밖에 없다.

서울에 국립발레단이 있고 시립발레단은 광주가 유일하다.

그러니 광주 출신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

루마니아 출신 단원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분들로 채워져 있다.

경북 대구 출신으로
광주시립발레단 입단 후
12년째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차석 발레리나 박경애

1976년 창단된 광주시립발레단은 국내 유일의 시립발레단이다. 최태지 예술감독이 취임한 이래로 전통클래식 발레와 새로운 형태의 창작발레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20년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전막 공연, 2021년 제128회 정기공연 '오월바람' 등 수준 높은 공연들이 이어졌다. 광주시립발레단의 공연에서 주역과 솔리스트로 실력을 보여준 이가 있다.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시립발레단 차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나 박경애(36)씨. <오월바람>에서는 주인공 헤인 역할을,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는 라일락 요정 역할을 맡았다. 올해로 광주에 온 지 12년째. 발레리나 박경애 씨의 꿈과 고민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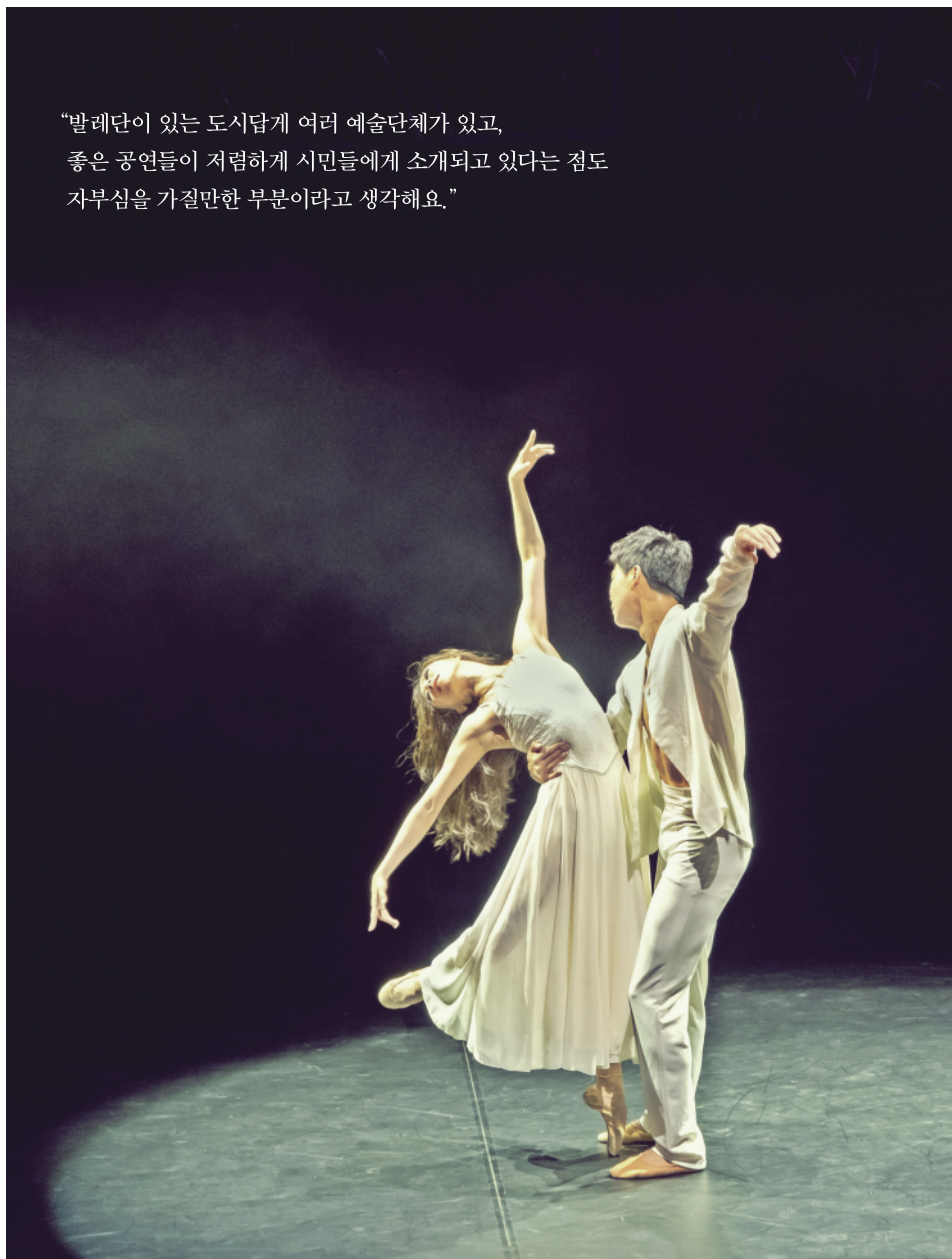
광주에 오게 된 이력을 먼저 물어보려고 발레단 면면을 살펴봤는데 질문이 무색하게도 광주 출신이 거의 없었다.

한국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발레단이 두 개밖에 없다. 서울에 국립발레단이 있고 시립발레단은 광주가 유일하다. 그러니 광주 출신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 루마니아 출신 단원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분들로 채워져 있다.

첫 대답부터 놀랐다. 우리나라에 시가 이렇게 많은데 시립발레단이 하나였다니. 경쟁률도 엄청날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한다. 대학 졸업하고 발레단 들어오는 게 좋은 케이스이긴 하니까. 발레단에 들어오거나 가르치는 쪽으

“발레단이 있는 도시답게 여러 예술단체가 있고,
좋은 공연들이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도
자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로 가거나 그렇게 진로를 잡는다. 지금 들어온 지 12년 되었고 현재 차석으로 있으면서 주역도 하고 솔리스트도 병행하고 있다. 시립발레단이 전국에 하나 있다 보니 관람객도 전국에서 오시고 발레단 공연도 광주뿐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한다.

발레단 단원의 하루가 궁금하다. 거의 먹지도 않고 혹독한 훈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먹는다. (웃음) 워낙 체력이 필요한 일이니까. 루틴은 늘 비슷하다. 아침에 조금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 출근 시간은 10시인데 와서 몸을 풀어야 하니까 보통 한 시간 이상 일찍 와서 계속 연습을 한다. 점심은 보통 안 먹는다.

방금 엄청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일 끝나고 저녁 때. 중간에 연습할 때는 많이 먹으면 몸이 불편하고 남자 단원과 페어 안무를 할 때 상대에게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간식 조금 먹고 연습을 한다. 퇴근은 4시지만 개인에 따라 거의 시간을 넘겨 가면서 연습을 한다. 일정이 끝나면 몸 컨디션에 따라 병원에 치료를 가거나 마사지를 간다. 일상이 거의 공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연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다. 지금 발레단에서 공연을 좀 많이 잡아주시는 편이다. 여기 있는 동안 단장님이 세 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단장님 스타일대로 많이 바뀌긴 한다. 지금 최태지 단장님은 단원



들이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다.

끝나고 병원에 간다는 말에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

발레를 하다 가장 힘들 때는 부상을 당했을 때다. 평소 몸 관리를 잘 해야 조금 더 길게 춤을 출 수 있으니 꾸준히 계속해 줘야 한다. 사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몸 관리 하느라 월급이 거의 남지 않는다. 다른 장르와는 달리 정적이고 형식이 있는 편이라 공연이 있을 때는 먹는 것도 자제를 많이 해야 하고,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회식도 하고 고기도 먹고 그랬다.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발레를 전공하게 된 계기와 꾸준히 해온 원동력이 궁금한데.

5학년 때 취미로 시작해서 6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처음에는 춤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쁜 옷이 입고 싶어서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 사실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다. 대구에 발레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아니면 광주에 가서 발레단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의 이를 수 없는 꿈이라고 보셨다. 그냥 취미로 하고 다른 길을 택하길 바라셨다. 학교도 인문계를 나와서 끝나고 학원을 다니며 연습을 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된 것 같다. 시립발레단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가본 적 없는 타지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는데 나중에는 잘 해내고 있어서 대견해 하셨다.

발레리나에게 광주는 어떠한가. 타지에서의 삶은 이제 완벽 적응된 건가?
 2009년에 왔으니 12년째여서 타지라는 생각 자체가 없긴 하다. 시립 발레단이니 정책적 지원도 있고 조금만 나가도 공기 좋은 곳이 있고 밥도 맛있고 다 좋다. 광주 음식 중에서는 특히 육전을 좋아한다. 광주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 너무 맛있다. 좋아하는 공간들도 많다. 직장이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도 좋고, 광주호 호수생태원도 좋아한다. 또, 발레단이 있는 도시답게 여러 예술단체가 있고, 좋은 공연들이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도 자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타지역 친구들에게 밥도 맛있고 가볼 곳도 많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

<오월 바람> 작품은 5월을 주제로 창작 발레였다는 점이 의미깊은 것 같다.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작품이고 당시 계엄군에 맞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다. 클래식 발레가 궁중처럼 예쁘게 춤을 춘다면 창작 발레는 좀 더 감정을 섞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른 장르를 참고해서 감정 표현도 연습하고 받은 역할에 대해 분석도 많이 한다. 슬프고 아프고 깊어지는 감정 표현을 하며 춤을 추는 게 쉽진 않았고 에너지가 몇 배로 드는 느낌이었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다. 공연장도 소극장이어서 관객분들이 무용수들의 표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

<오월바람>같은 작품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면?

대구 사람이었다. 5·18에 대한 인식이 단순하게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이다, 라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면 5·18을 다루는 작품을 하면서 생





“5·18에 대한 인식이 단순하게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이다,
라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면
5·18을 다루는 작품을 하면서
생각이 확장됐죠.
나이가 어린 분들도 많은데,
두려움을 이겨낸 힘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대단한 일이라고...”

각이 확장됐다. 민주주의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을 한 분들을
생각했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많았는데, 두려움을 이겨낸 힘은 무엇
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대단한 일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발레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레의 매력을 좀 어필해준다면?

관객들은 발레를 통해서 동화, 꿈, 환상을 보시는 것 같다. 우리가 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백조의 호수에서 사람이 새처럼 움직이는 장면
을 보고 좋아한다든가 판타지적인 경험이 매력인 것 같다. 다른 장르
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발레는 직접 공연장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장르다. 그래서 한번 보신 분들이 계속 오시기도 한다.

일단 연말에 호두까기 인형으로 시작을 하는 건 어떨까. 크리스마스
의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가족들과 보기에 정말 좋다. 또 백조의 호
수 같은 전막 공연을 보러 갈 때는 스토리를 미리 알고 가면 각 장면
을 춤으로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이해가 더 잘 되실거다. 요즘은 공연
을 할 때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소극장 공연도 하고 홍보나 이벤트
도 전보다 많이 하면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백조의 호수
처럼 하나의 스토리를 긴 시간 동안 하는 전막 공연보다 살롱 콘서트
같은 갈라쇼- 여러 작품 중 관객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합해서 올리는
공연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

발레리나만의 공포랄까 고통이 있다면?

가장 힘들 때는 부상으로 무대에 설 수 없을 때다. 발레단에 들어오
게 되면서는 관객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춤을 추는 것과 관람료를 내고 들어오는 분들 앞에



서 춤을 추는 건 당연히 다르니까.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무대에 섰을 때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엄청 크다. 내 능력치 밖의 캐스팅이 주어졌을 때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리 연습을 해도 공연 때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고 밤에 잠도 못자고 그렇다. 이후 무대에 서는 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여러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요즘은 취미나 운동으로 발레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누구나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발레는 운동도 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 가만히 서서 팔과 다리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코어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코어 힘을 길러주면서 몸의 균형을 다듬어주는 같은 몸무게인데도 몸의 형태가 굉장히 예뻐진다. 취미로도 운동으로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이야기 열 일곱



피지않은 꽃봉오리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국립광주박물관 이영신 학예사

박물관에 가서 문화재를 보고 있으면 아픈 게 낫는 듯한 느낌이 예전부터 있었다.

알 수 없는 박물관의 아우라가 나를 치유하는 것 같고 간혀있는 곳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내뿜는 기운이 있는 곳 같았다.

전북 남원 출신이다.

2006년 국립광주박물관에 부임한 이후

15년째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린이교육을 담당하는 학예사로 일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이영신 학예사

그가 인터뷰 장소에 펼쳐놓은 그동안의 교육자료, 굿즈들의 디테일과 양은 놀라웠다. 자료 속에는 어린이, 교사, 군인, 환자 등 다양한 집단에게 박물관 교육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고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그와 동료들이 있었다. 전북 남원 출신의 국립광주박물관 이영신 학예사(42). 2006년에 광주로 왔고, 어린이박물관학교, 교사연수, 뮤지엄스테이, 청소년큐레이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을 알려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해왔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박물관 직원이 퇴근 후 듣는 음악'이라는 카테고리가 많더라.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시선을 느낄 때가 있나?

택시를 타고, 국립광주박물관 가주세요라고 하면 좋은 데서 일한다고 할 일 없어서 좋겠어요, 이렇게 기사분이 말하신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전시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내리는데 정말 억울하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웃음) 이번에 40주년 기념으로 전시 개편을 새로 했는데 거의 2주 동안은 새벽 4시에 퇴근하고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힘든 직업인 줄 알고 한 건가. 어떻게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을까? 다들 그렇겠지만 고3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도 옛 문화를 보고 박물관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긴 했다. 박물관에 가서 문화재를 보고 있으면 아픈 게 낫는 듯한 느낌이 예전부터 있었다.



알 수 없는 박물관의 아우라가 나를 치유하는 것 같고 간헐있는 곳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내뿜는 기운이 있는 곳 같았다. 직업으로 일을 해보니 이 일은 역사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긴 한다.

이곳에서는 교육담당 학예사로 일을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도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광주에 온 지 꽤 오래 되었다.

졸업 후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광주에서 교육 쪽 학예사를 뽑아서 오게 되었다. 박물관 교육 분야 쪽 세미나를 들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박물관에 머물러 있는 문화와 유적이 사람들에게 계속 확산이 되는 게 의미있게 느껴졌다.

교육 쪽은 아무래도 지역 기관과의 협업도 많고 해서 그동안은 로테이션이 없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다. 광주에 온 것이 2006년 12월이다. 그날 일이 다 끝나고 오후 11시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눈이 많이 와서 모든 것이 안 보일 정도였다. 그때는 몸도 마음도 참 추웠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참 따뜻한 곳인 걸 알게 됐다. 아, 그리고 광주는 결속력도 참 대단한 곳 같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박물관에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아무도 안 오시더라.

교육담당 학예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마다 항상 전시 연계 교육을 하고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해마다 진행한다. 자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박물관 교육 대상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우리 박물관 특성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 도자문화 유적입니다.
이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북구청, 국립광주과학관 등 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하죠.”

일반인, 군인들, 환자, 장애인, 노인 등 굉장히 다양하다. 박물관의 프로그램과 전시물에 대해 좀 더 재미있게 배우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획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박물관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유물 찾기 활동을 하기도 했고, 문화재 동서남북이라고 종이접기를 적용해서 미션을 하는 프로그램도 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자료도 만들고 그림책에서 힌트를 얻어 손전등으로 빛으로 쏘며 볼 수 있는 빛 그림책을 만들었다. (옆에 있던 여행가방을 열어보이며) 이 자료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대여하는 자료인데 좀더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여행 캐리어로 만들어봤다.

이런 모든 자료를 직접 기획하고 글을 쓰고 만들었다는 건가. 거의 유치원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자료들이 2008년도부터의 기록이다. 어린이박물관에 두 분, 박물관 교육 쪽에 두 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많은 대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4명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또 그 중 정규직은 저 하나다 보니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료 만들기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 체계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처음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2007년 유치원 선생님 대상 아카데미



였다. 그 당시 어린이박물관이 열려 있긴 했지만 어수선하고 활용도 잘 안되던 시기였는데 선생님들 40여 분과 어린이 박물관 활용에 대해 열띠게 대화하고 직접 활동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 위주로 진행한 <선사인의 밥상> 프로그램도 보람있었다. 2000년 전 광주 신창동 유적의 식문화를 접해보자는 기획으로 선사인의 음식 체험을 해본 것이다. 각각 집으로 밀키트를 배송해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줌으로 만나 소개했다.

국립박물관 브랜드가 전부 다르다는 것을 팸플렛을 보고 처음 알았다. 국립이긴 하지만 광주에 있는 박물관이어서 지역과의 협업, 지역만의 특색도 중요할 것 같다.

신안해저 문화재 발굴을 계기로 광주 박물관이 지어졌는데 그때 도자기가 많이 나왔다. 광주 가마터가 굉장히 많고 도자기 만들기 좋은 흙이 많다. 충효동, 강진에도 도자기 관련 유적이 많아서 브랜드가 아시아 도자문화로 정해졌다. 이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시하고 있다. 북구청, 국립광주과학관 등의 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한다. 방학에는 항상 과학관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문화적, 과학적 접근의 양갈래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처음 어린이박물관은 전시실의 축소된 복제품을 손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에 머물렀다. 그 후로 조금씩 각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바뀌면서 만지고 체험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광주는 ‘꽃을 피우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광주의 문화에는 존재하고,
언젠가는 더 많은 꽃을 피워낼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의 꽃들이 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고 생각한다. 색감도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지만 차분한 쪽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디지털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박물관 전시나 운영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사람들이 박물관에 오지 못하면 박물관이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뭔가를 많이 보내는 방법을 고민했다. 드라이브 스루, 위킹 스루 방식도 많이 적용했다. 전문 제작자는 아니지만 영상 제작에도 정말 노력을 기울였다.

유튜브로 박물관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체험도 많이 안내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상황이 또다른 전환점이 되는 것 같다. 프로그램이 오픈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 서울, 인천, 속초까지 전국에서 신청을 하셔서 3분 안에 마감이 되어버리더라. 지역에 머물던 전시나 문화를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맞게 변형시켜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경기도, 강원도 학교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뿌듯했다.

엄청 힘들게 일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직장 환경은 부럽다. 박물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

광주박물관 정원이 굉장히 예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바뀌고 박물관 그림 속에 있는 식물, 곤충 같은 자연이 다 박물관 정원에 있다. 처음 광주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일이 버거울 때 먼저 계시던 사수분이 힘들 때는 흔들리는 나뭇잎을 세면서 그런 상념을 잊어버려라, 비가 내리면 빗방울을 세면서 마음을 잔잔하게 하라, 그런 말



을 했었다. 그때는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나중에 힘들 때 그 얘기가 떠오르고 정말 나뭇잎을 세고 빗방울을 센다.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박물관 학예사 이영신에게 광주라는 도시는 어떤 의미인가?

광주는 ‘꽃을 피우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광주의 문화에는 존재하고, 언젠가는 더 많은 꽃을 피워낼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은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의 꽃들이 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추상적이지만 광주라는 문화의 꽃밭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내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가죽공예가 플랑드르 줄리아 ——

오래된 동네에 살다 보니 자전거를 타는데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정말 예쁜 곳들이 많다.
그런데 다음에 가보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있다.
안타까울 때가 많다. 뭐랄까.
광주는 역사 문화적으로 잠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도시인 것 같다.

복합문화공간 먼데이 오프 플리즈 박재만 대표 ——

사실 광주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공간이었다.
나란 존재가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좋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모르는 것을
알아갈 수 없고, 그 벽을 무너트리기 쉽지 않다.
장기적 무관심이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큰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 출신이고

복합문화공간 남의집 오픈을 준비하는

광주 생활 1년차 바덴더이자 댄서이다.



이야기 열 여덟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어서

댄서 & 바텐더 박경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해봤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욕심이 생겨서 바텐더 스쿨에 가서 자격증도 따고 가게의 메인바텐더가 되었다.
그런 기회를 내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편안하게 배우고 사람들에게 피쳐 나가서
우리나라에도 바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댄서 & 바텐더 박경빈

전남대학교 뒤편, 상가들이 즐비한 골목길에 카페 겸 문화공간인 ‘남의 집’이 있다. 겉에서 보면 잘 표가 나지 않지만 대문으로 들어서면 어린 시절 친구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한 기분이 드는 공간이다. 좁은 마당을 지나니 짙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철문이 있다. 문을 열자 ‘와’ 하는 탄성이 나온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지만 충분히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는, 어쩌면 날마다 가고 싶은 것 같은 공간이 그곳에 있다. ‘남의집’이라는 공간을 만든 이는 인천이 고향인 댄서이자 바텐더 박경빈 씨(29)다.



가게 이름이 <남의집>이라니 너무 마음에 쏙 와닿는 거 아닌가?
같이 오픈하는 친구 이름이 ‘남의’다. 처음에 그 이름을 정할 때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입에 착착 붙고 우리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이름, 특이하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이름. 우리 가게가 쉽게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골목까지 걸어들어와야 하는 곳에 있으니 이름이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끝에 지은 이름이다.

약속 정할 때도 “야 남의 집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기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장 이름이 ‘남의’라니 반전이다.

‘김남의’라는 친구 이름이 참 좋았다. 처음엔 친구가 같이 오픈하는데 자기 이름만 들어간다고 미안해했다. 친구가 어린 시절 돌잡이를 했던 집이고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니 당연히 너의 집이라고 얘기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놀러간다는 그 느낌, 그 설렘

“스트리트 댄스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비(정지훈)씨가 춤추는 걸 보고 너무 멋있어서
혼자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고
기획사 오디션도 보고 그랬죠.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았다. 이 집이 원래 하숙집이었고 나는 ‘남의집’에서 하숙하는 하숙생 느낌으로 가자고 했다.

<남의집>이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나. 원래 하숙집이었던 골목 사이의 주택, 이 공간의 역사와 성격만으로도 많은 걸 상상하게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겠고, 2층에서는 카테일 클래스를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2층에 마지막 하숙생이 계신데 그분이 나가면 공간이 빈다. 사실 카테일도 기술인데 사람들이 너무 환상을 품고 있는 것 같고 멀게 느끼는 것 같다. 나는 유튜브 같은 걸로 많이 배웠지만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편안하게 배우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서 우리나라에도 바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지금은 바 오픈을 준비 중이지만 스트릿 댄서 이력이 있다. 춤은 지금도 추고 있나?

가게 오픈 준비로 정신이 없긴 하지만 살사와 라틴댄스를 배우고 있다. 여전히 춤을 추는 건 즐겁다. 스트릿 댄스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비(정지훈)씨가 춤추는 걸 보고 너무 멋있어서 혼자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고 기획사 오디션도 보고 그랬다.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다. (웃음) 고등학교에 가니 댄스 동아리가 있어서 들어갔다. 입시 댄스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며 배우진 않았고 청소년 수련관 다니며 선배들과 즐겁게 댔다. 그때 좋은 선배도 만났는데 그 형이 겉멋에 취해있던 내 생각을 많이 잡아줬다. 지금도 연락한다.



“사람들과 말다운 말을 하고 싶었죠. 광주에 와보니 많이 다르더라고요.
친구 가족은 물론 동네 분들도 정이 진짜 많아요.
이곳은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도시이고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죠.”

스트리트 댄서로 활동했지만 공연기획을 전공했고, 페스티벌 매니저도 했다. 현실적인 고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멘토 같던 형이 대학을 갈 때는 춤이 아닌 공연기획으로 진학을 하더라. 그 형의 영향도 있긴 했지만 집안에서도 항상 현실적인 부분, 진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학에 가서는 중고등학교 때 안하던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과수 석을 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고(웃음). 페스티벌 매니저 역할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졸업하고 회사를 다녀보니 내 적성이 앉아서 하는 일 쪽이 아니더라. 일은 재미있을 때도 있었는데 오래 앉아서 일을 하고 그런 게 맞지 않았다.

그럼 회사를 나온 후에 각테일을 배운 건가. 직전에 하던 일과 연관성이 별로 없는 일이다.

대학원을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집안 형편도 있고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불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술집을 갔는데 친구가 바텐더를 하고 있었다. 친구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이 굉장히 적성에 맞았다.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해봤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욕심이 생겨서 바텐더 스쿨에 가서 자격증도 따고 가게의 메인 바텐더가 되었다. 처음 메인이 되었을 때 정말 손을 떨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바텐더라는 직업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잘 맞았을까. 워낙 생소한 분야라 궁금하다.

내가 창작한 각테일을 단골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줄 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만든 걸 내가 먹어봐도 맛이 점점 섬세해지고 좋아지



고 있다고 느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또 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는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 오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까. 나는 그런 이야기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 사람들은 한 잔의 칵테일을 두고 거짓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람들이 순수하고 솔직해진다. 물론 그 솔직함이 지나쳐 분노를 터뜨리는 분도 있지만. 술잔을 던지기도 하고. (웃음)

메인 바텐더까지 갔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타인의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열정만 있던 시절이 지나니 나에 대한 대우라든가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가게를 나오게 됐다. 다른 가게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다. 그때 친형이 기계 설계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기술을 배웠다.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고.

아직 20대인데 이력이 굉장히 다채롭다. ‘기술을 배우다’는 표현은 굉장히 윗세대의 말인데(웃음)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젊을 때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산업기사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기술로 전향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그때 하고 싶은 칵테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많이 아팠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쓰러진 거다. 별거 아닌 몸살감기인 줄 알았는데 큰 병원을 가게 됐다. 조금 늦었으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까.
나는 그런 이야기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보다 사람이 느끼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죠.”

위험했다고 하더라. 그때 지금 같이 가게를 준비하는 친구 남의가 문병을 왔다.

드디어 <남의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다.

남의가 졸업 후 귀향해 조부모님을 봉양하며 카페를 창업하겠다는 말을 꺼내더라. 당시를 돌이켜 보면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칵테일 이야기를 시발점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마치 함께 공연기획 일을 할 때처럼 말이다. (웃음)

처음에는 작은 비중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이곳에 와 있었다. 친구가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과 지인들이 다 경기도에 있는데 자기 하나 믿고 이렇게 와 주었다고.

광주라는 도시는 어떤 느낌인가?

인천에 혼자 있을 때 옆에 슈퍼 하나만 있고 주위에 아무 것도 없는 빌라에 살았다. 하루종일 말을 안 하는 날들이 엄청 많았는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려고 말을 꺼냈는데 말이 막 꼬이는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카페에 가도 진동벨 들고가서 커피 받아올 때 듣는 ‘감사합니다’ 같은 말 빼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없었다. 사람들과 말다운 말을 하고 싶었다. 광주에 와보니 많이 다르다. 친구 가족은 물론 동네 분들도 정이 진짜 많다. 카페에 가도 진동벨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는 늘 사람과 말을 하고 정을 나누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곳은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도시고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다.



공연기획을 전공했고, 댄서였던 이가 만들어갈 바문화는 어떤 빛깔일까?
 예전에 앞날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봤는데 그대로 안될 때가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긴 미래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이 순간을 사는 게 좋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자극은 되지만 목매어 가며 살게 되는 것 같고, 매일 매일을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고 싶다.
 지금 오픈하는 가게도 너무 잘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공간이 시끄럽게 붐비지 않고 프라이빗하고 집중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저 짙은 녹색 철문을 열었을 때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테리어도 구상을 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보다 사람이 느끼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분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주는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싶다.

A woman with long brown hair and glasses stands in the center of the frame, smiling. She is wearing a bright red, long-sleeved dress with a colorful floral pattern on the sleeves and a solid red skirt. She is also wearing yellow strappy sandals. Her arms are crossed in front of her. Behind her is a large tree with vibrant pink flowers. To the right, there are green plants in a planter. In the background, a modern building with a concrete overpass and a perforated metal fence are visible. The ground is paved with grey tiles.

서울 출신이고

2010년 광주월도뮤직페스티벌 업무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후

11년째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희곡작가이자, 문화기획자다.

이야기 열 아홉

허심탄회한 소통을 꿈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사업과 박주리 사무관

광주에 왔을 때 어린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눈치를 정말 많이 봤다.

더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공기관 아닌가.

하지만 나처럼 현장에서 활동한 예술가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행정 언어를 예술 언어로 통역을 하는 역할이라고나 할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사업과 박주리 사무관

1995년 희곡 <먼지아기>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다. 이후, 희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관>을 쓰고 연출을 맡는 등 희곡작가, 연극인으로 일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사업과 박주리 사무관(50). 서울이 고향인 그녀가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이 되면서 부터다. 2012년 2월1일, 광주로 첫 출근을 했다. 그 해 처음으로 맡은 사업이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고 홍보업무를 하였다.

낯선 광주에서 인연의 시작. 지금은 예술극장 공연 창·제작 사업과 월드뮤직페스티벌, 야외문화예술프로그램 사업 등 예술극장 사업을 관리하고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업무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 사업을 기획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작가에서 출발해서 문화행정 업무까지, ‘문화’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상당히 다른 결의 업무들을 헤쳐 나가고 있다.



ACC 사무관이 아닌 작가 박주리가 궁금하다. 1995년 희곡 <먼지아기>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중학교 때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요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요정 아이시스라고 불렀다. 시인이 되고 싶어서 문예창작과를 갔다.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출판사에 다니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 암이 너무 많이 전이 돼서 수술을 못하고 다시 봉합을 했다. 그날 누워계시던 어머니 이미지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아직도 병원이 있던 신촌에 잘 못 간다. 거의 6년 정도 투병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하고 싶어서 신춘문예에 희곡을 냈다. 그때 당선된 작품이 <먼지아기>다.

<먼지아기>, <플라워>, <마른 꽃잎>, <꽃신 그 길을 따라>등 작품에 어머니, 죽음 등 일관된 주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회곡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내 고민은 늘 죽음이었다. 어머니의 아픔과 죽음을 옆에서 보고 겪으면서 그런 화두가 생긴 것 같다.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마녀사냥으로 이뤄지는 사회적인 죽음도 혼해지지 않았다. 죽음, 죽음 이후의 삶 그런 것들을 늘 풀어보고 싶었다. <먼지아기>를 뽑은 심사위원이 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

창작을 하는 작가에서 정책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계기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늘 궁금했고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뒤늦게 공부한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논문 주제도 한국 저승사자에 대한 것이었다. 공부를 하던 중 관심 있던 주제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업무가 연관이 있었다. 광주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 5·18사진을 본 경험 밖에 없는데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이 책 몇 권 옷 몇 개 들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

같은 협업이긴 하지만 연극무대와 문화전당 업무는 결이 다를 것 같은데?

대학로의 자유롭고 활기찬 문화를 정말 좋아했었다. 연습하고 콘서트내고 끝나면 술 한잔 먹고 풀고. 처음 왔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힘들었다. 광주에 왔을 때 어린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눈치를 정말 많이 봤다. 더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무원 조직 아닌가. 하지만 나처럼 현장에서 활동한 예술가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행정 언어를 예술 언어로 통역을 하는 역할이라고나 할까.

2020 제3회 아시아문화비엔날레 '아시아의 달' 연계공연

“전당에서 민관협치를 할 때 지역 예술계의 의견이 무척 중요한데
광주 예술계가 이념이나 이즘으로 나뉘져있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예총, 민예총 상관없이 제안을 할 때는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한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2020 국제 공동 창제작시범 공연

전쟁의 슬픔

2018 아시아문화대상 수상작 <전쟁의 슬픔> 원작바오 닌 작
Bao Ninh's 'The Sorrow of War'

영상 소개이스
10.30, 오후 7시 ~ 11.1, 오후 7시
유튜브 공개 [YouTube](#) [전쟁의슬픔](#)

세미나
11.1, 오후 5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극장 2층](#)
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99-556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2-3683-6862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동 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ICIC
립아시아문화전당
HIA CULTURE CENTER



RROW AND EEDS 플과 씨앗

영상 스케이스
10.30 ~ 11.1.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YouTube](#) [@nordiskteater](#)

세미나
11.1. 오후 5시 / [www.nordiskteater.dk](#)

문의: info@nordiskteater.dk 1899-5566

**NORDISK
TEATER
LABORATORIUM**

출연진



시닐 투위센
Signild Thyesen



에드워드 트루이레
Edward Trouiller



구스타브 크리스티안센
Gustav Kristiansen



알마마이어 하문드롭
Whalmai Hamdrup



아브라함 하데마커
Abraham Rademacher



카롤라인 사델린 뱅
Karoline Sadelin Bant

ACC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콘텐츠사업과는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ACC는 노무현 대통령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 취지에 걸맞는 다양한 공연제작과 창의적인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추진해왔다. 민주평화교류사업 일환으로 광주민중항쟁 때 도청에 계셨던 분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했을 때만 해도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고 전화를 하면 뭘하는 곳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래도 정말 보람과 애정을 갖고 열심히 했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국제공동 창·제작 사업인데 어렵지만 보람이 있다.

국제공동 창·제작 사업이라면?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창작부터 제작까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교류해서 공연작품을 만들고 워크숍·세미나 등 연구사업을 통해 아시아공연예술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기획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사업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발발하여 하나의 원작 시설을 가지고 덴마크와 한국에서 각각 공연한 것을 영상으로 촬영, 편집해서 공연영상을 교류, 각각 상영회를 했다.

올해는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고 백신도 맞고 해서 연출, 스테프 교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문화적 인식 차이가 많은 서양 예술가들과 조율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이다. 야근도 정말 많이 한다. 덴마크 오딘 극장에서 12월 4일과 5일 공연을 하고 내년 1월에는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상영한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협업, 관계 맺기 등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같은 국립이지만 서울의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등과 이곳의 예술극장은 목표도 운영 방식도 다르다. 예술극장에는 이곳만의 설립 목표가 있다. 물리적으로도 무대가 가변형이고 다양한 무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예술가나 기관과의 협업도 당연히 중요하다. 전당에서 민관협치를 할 때 지역 예술계의 의견이 무척 중요한데 광주 예술계가 이념이나 이즘으로 나뉘어져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예총, 민예총 상관없이 제안을 할 때는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다 한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광주 소극장 축제같은 협업 기획도 하고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센터협회(AAPPAC) 같은 곳에 가입해서 국제적인 교류도 해야한다.

다른 나라부터 지역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사람의 고충이 느껴지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인연일 수만은 없다. 나쁜 인연도 다 만났어야 하는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걸 감추고 없는 척하는 것보다 그런 그림자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한다. 만남 자체가 인생이다.

광주에 자리잡은 지 8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광주에서 사는 것은 어떤가?

광주하면 당연히 음식 아닌가. 광주에 내려올 때 말랐었는데 초기에



“마을의 구술사가 100년 후면 전설이 되고 설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책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싶어요.
시민극단과 연극공연을 해보고 싶기도 하구요.”

정말 살이 찼다.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 특히 육전, 그리고 육사시미, 소고기와 낙지로 탕탕탕해서 주시는 탕탕이. 덤문화도 엄청 좋다. 양동 시장이든 대인시장이든 2천 원만 내도 이만큼을 주신다. (웃음)
사실 처음에 광주에 왔을 때는 연극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도 받았는데 지금은 관에서 일하다 보니 작가로서 정체성 드러낼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기분도 든다. 지금은 나이를 먹기도 했고 창작활동을 눈치 안보고 하려고 한다. 사실 공연 예술 하는 사람들도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연극, 융·복합 공연, 판소리, 오페라, 클래식 같은 공연부터 ACC월드뮤직 페스티벌 등 많은 사업을 해왔다. 앞으로 진행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지? 생활사 중심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지역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기록을 해놓아야 할 역사들이 정말 많다. 도시재생같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판소리하고 민요 부르는 분들, 사연있는 지역민들의 삶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문화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사라질 때마다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 마을의 구술사가 100년 후면 전설이 되고 설화가 될 것이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책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싶다. 시민극단과 연극공연을 해보고 싶기도 하다.

작가로서는 어떤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들도 궁금하다.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낸 작품이 선정이 되어서 광주에 있는 극단에서 공연을 했다. 연말에는 책도 나온다. 희곡작가협회에서 책을 내는데 거기에 <먼지아기>와 최근 공연한 작품을 수록했다. 극장 일도 정말 매력적이고 만족감이 있다. 가장 큰 만족감은 내가 쓴 글로 공연이 되었을 때 온다. 여기 있는 동안 조직이 끊임없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내 자리가 어디가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작가로서 정체성은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재미있게 풀어내는 저승시리즈를 해보고 싶다. 하루하루, 내 삶의 마지막날이라 생각하며 시간과 공간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다.

2018년 광주연희예술단 굴렁쇠와 인연을 맺은 후

3년째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통 연희극 기획자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야기 스물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연희예술단 굴렁쇠 차예지 기획실장

광주는 기름이 잘 되어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한다.
제가 예술을 할 수 있는, 너른 품이자 예술 농사를 짓는 터전같은 곳이 광주다.
사실 이 분야가 평생 경쟁구도에 있고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하다.
그런데 광주는 그런 게 없었다.

연희예술단 굴렁쇠 차예지 기획실장

지난 2010년 창단한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는 전통 풍물굿이 지닌 역동성과 기예를 현대적 해석으로 보여주는 공연예술단체다. 자체적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가 하면 풍물교육을 통해 풍물굿이 가지고 있는 힘과 멋을 전파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굴렁쇠에서 기획실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차예지(35)씨는 광주 토박이가 아니다. 서울이 고향이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성장했다. 열 살 때부터 타악을 공부했고, 동아방송대에서 연희연기를 전공했다. 그는 굴렁쇠 활동 뿐 아니라 광주 두암동에 차 문화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고향이 강원도 원주다. 먼 광주까지 어떻게 오게 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걸까 내가 광주랑 좀 잘 맞다. (웃음) 장구를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남쪽 지역의 농악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어서 연구도 하고 캠프에 가고 그러다가 이쪽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다. 2018년도 광주연희예술단 굴렁쇠에 들어와서 광주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 숙소에서 지내는 게 한계가 있더라.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싼 방이 있어서. 방 핑계를 댔지만 광주는 거름이 잘 되어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예술을 할 수 있는, 너른 품이자 예술 농사를 짓는 터전같은 곳이 광주다.

광주의 저렴한 부동산 가격이 붙잡게 되었다는 이야긴가. 요즘은 광주도 만만치 않을텐데

(웃음) 여튼 방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생기니 오늘 갈 것을 내일 올라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연장은 전라도 쪽이 더 다양해요.
 그런데 지원이나 문화적 제도는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신생팀이 사업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일단 기획서를 쓰는 방법부터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예술인에게 예술만 하게 하는 곳이 아닌 거죠.”

가고 점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선생님들이 공연에 불러주시고 오래 머물다 보니 내가 광주에 잘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도 잘 풀려가고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갖는 인연들이 너무 좋았다. 사실 이 분야가 평생 경쟁구도에 있고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하다. 그런데 광주는 그런 게 없었다. 외부에서 왔는데도 경쟁심리나 경계하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 벌써 4년째 이렇게 살고 있다.

국악 무대가 많지 않을텐데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졌을 것 같다
굴렁쇠에 들어와서 창작극을 4개 올렸다. 이번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작품을 발표하게 됐고 이제 내 이름을 좀 내면서 치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50인 이상 야외 공연도 못하게 되었다. 뭐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간헐서 지내고 있으니 연습할 시간은 많아지고 이렇게 살도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굼어죽지 않고 살고 있으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

차예지라는 이름으로 처음 올리는 창작극은 어떤 내용인가
<그날의 올림>이라고, 김덕령 장군 이야기다. 힘이 장사였던 김덕령 장군의 남달랐던 부분, 의병장으로 왜놈들을 막아내는 부분,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고문을 받다가 죽는 이야기까지 최대한 사실을 토대로 썼다. 40분 정도로 짧게 해야 하고 예산도 적어서 배우들을 많이 쓸 수는 없었다. 스토리를 짧고 굵게 쓰고 여러 음악을 응용해서 만들었다. 거리 예술제 때 금남로에서 3회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공연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연기가 되었다.

10살 때부터 장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다. 서양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거다. 사물놀이반이 무료여서 오빠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물놀이팀에서 공연을 하다가 알게 된 예술강사 선생님의 권유로 프로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보통 6학년이면 40분 집중하기도 힘든데 2시간, 3시간 집중하는 게 신기했다고 하시더라. 14살 때부터 선생님들과 같이 공연 다니고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생활을 스무 살까지 했다. 그런데 예대를 가기는 어려웠다.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의상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이상하게 다시 무대랑 연결이 되었다. 연희연기과로 편입을 해서 계속 전공을 하게 되었다.

연희극이나 창극은 조금은 멀어진 장르 같다. 공연무대가 많지 않을텐데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떨어졌다. 특별한 날 뮤지컬이나 연극은 보러 가지만 마당극을 보러가진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창극은 뭔가 오페라랑 비슷하다면 연희극은 좀 더 가벼운 뮤지컬과 비슷하다. 노래, 무용, 타악 등이 다 들어간다. 전통의 색깔이 들어간 뮤지컬이라고 보면 된다. 어쨌든 관객들이 봤을 때 재밌다. 우리 것이지만 새롭고 지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작년에 작품을 했을 때도 “굿이라는 게 무당들이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극으로 풀어내니 너무 재미있다”고 말을 해주셔서 힘을 많이 얻었다.

기관이나 단체의 후원이나 지원사업이 절실할텐데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연장은 전라도 쪽이 더 다양하다. 그런데 지원이



“우리 것이지만 새롭고 지루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작년 작품을 했을 때도 굿이라는 게 무당들이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극으로 풀어내니 너무 재미있다고 말을 해주셔서 힘을 많이 얻었죠.”

나 문화적 제도는 참 아쉬운 점이 많다. 신생팀이 사업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 일단 기획서를 쓰는 방법부터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예술인에게 예술만 하게 하는 곳이 아니다. 예술인이 예술도 하고 행정도 하고 기획도 해야 한다. 사업 진행도 행정 편의적이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하고 있지만 굉장히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지금 당장 카페나 레스토랑이라도 하면 한 달에 200만원은 벌 텐데 이 생각이 안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버티나

다른 일을 하다 오랜만에 장구를 쳤을 때 했던 생각이 있다. 하루종일 장구만 치고 춤만 추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그때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하루하루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고민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늘 듣는 말이 예술가가 그렇게 많은데 네가 뭐가 잘 되겠냐 직장 다니면서 월급 모으는 게 최고지 이런 말들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음식점 많은 데 식당도 차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맛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스물한 살 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다. 10년 뒤에 나를 보면 “너 참 멋있게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나는 맨날 똑같이 출퇴근하고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지키면서 하고 있구나.”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남들보다 더 넓고 깊게 가자. 잘하자.

원주에서도 차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음식을 하고 맛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원주에서 차를 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맛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따라주신 차를 마실 때마다 맛의 차이가 다 느껴졌다. 당시에 몸이 안좋고 염증 수치도 높았는데 차를 자주 마시니 목의 부기도 가라앉고 입안에 머무는 향기도 너무 좋았다. 그렇게 차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차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 중 한 분이 차 상인이 될 건지 차인이 될 건지 잘 생각해보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차인과 차상인의 길 중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차를 마시러 다니면서 좋은 분들도 만났고 몸도 정말 좋아졌다. 어머니도 원래 몸이 안 좋으셔서 대상포진으로 입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 병원을 안 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차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 수치를 많이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에도 정말 좋다.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매개체도 되고 혼자 맛이나 향을 느끼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 좋은 차를 수집을 하게 되고 구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한다. 그래도 나는 상인의 길보다는 차인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본을 쓸 때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차예지답게라는 말을 자주했다. 앞으로 차예지답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뭔가를 바꾸고 싶고 펼치고 싶으면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권력을 잡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웃음)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너는 언젠가 꼭 빛날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한마디로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후배들에게 무엇이든 마련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때처럼 학교를 빛내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졸업생들이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건 후배들에게도 중요한 일 같다. 국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나같은 사람들이 굳건하게 잘 버텨야 사라지지 않을테니까. 그런 사람 중의 한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좋은 차를 함께 나누는 일도 멈출 수는 없고, 차든 예술이든 차에지답게 잘 해 보겠다.

댄서&바텐더 박경빈 ——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이곳에 와 있었다.
친구가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과 지인들이 다 경기도에 있는데
자기 하나 믿고 이렇게 와 주었다고.

연희예술단 굴렁쇠 차예지 기획실장 ——

오래 머물다보니
내가 광주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심리나 경계하는 게 없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연장도 다양하다.
하지만 신생팀이 사업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다.
행정편의적 진행이라 느낄 때가 있다.

덧붙이는 이야기



스무 명의 문화활동가들에게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광주문화재단 ——

온나라 문화일꾼들이 꿈을 펼쳐는 생생한 기록!
건강한 광주공동체의 숨겨진 사연들이 자못 흥미진진합니다.

광주관광재단 ——

광주와 함께 하는 젊은 문화인들의 애정과 열정이야말로
‘문화수도 광주’를 완성해나가는 밑거름입니다.
그 덕분에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

그들의 젊은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광주로서
한 발 나아간 느낌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

흙씨처럼 뿌리내린 귀한 분들의 이야기가
광주를 더 광주답게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드는
붉은 꽃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광주비엔날레 ——

문화예술 도시에서 건져 올린 젊은 문화인들의
 땀과 열정의 여운이 온돌처럼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광주시립미술관 ——

이 책에 등장한 문화활동가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그 덕분에 광주 문화의 폭이 더 한층 넓혀졌으리라
 기대합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타지에서 온 젊은 문화활동가들의 광주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더욱
 다채롭게 빛날 것을 기대합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

타 지역 출신으로 광주에 터를 잡고, 활발히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도
 광주 문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

광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지닌 타 지역 출신의
젊은 문화인들이 풀어낸 광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시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문화가 꽃 피는
광주의 모습을 담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책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광주와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광주테크노파크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
광주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광주다움’과 ‘문화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 ——

이 책에 실린 이야기를 보며 문화와 예술,
그리고 포용의 도시 광주를 대표할만한 분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과학관도 소통과 협업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 ——

남다른 성과가 있는 곳에 남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항상 봅니다. 그 애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이 열정이
지속가능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새로운 광주를 만나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광주를 만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에서 문화·예술을 자양분으로 세계와 소통하려는
문화 창조자들에게 진심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모아져 위대한 결실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시아문화원 ——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온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나은 광주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발행일 2021년 12월
펴낸이 광주문화기관협의회
펴낸곳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행부서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외협력팀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062-670-7424
만든곳 오월의책
총괄에디터 김인정

* 본 책자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광주지역 문화관련 기관들이 지역문화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결성한 협의회로 현재 16개 지역문화예술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자는 지역 시립도서관 또는
광주문화재단-정보&자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익숙한 것과 낯선 것들이
섞여 성장하는 과정이고,
누구라도 걸어들어와 ‘문화’를 해볼 만한
도시야말로 제대로 된 문화도시라는 점에서
광주는 얼마나 열려있는 도시인 걸까.

이 책에는 서울이나 부산, 창원, 인천, 전주
그리고 멀리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광주로 건너와
문화 등지를 튼 스무 명의 문화 여정이 담겨 있다.
문화적 외부자였다가 광주문화의 주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에는 문화도시 광주의 실제상황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비매품 / 무료



9 791196 701161
ISBN 979-11-967011-6-1

오우열의책